

DMB시대, 신행도 '진보'



휴대용 멀티 미디어 방송(이하 DMB)의 출현으로 '손안의 TV' 시대가 활짝 열렸다. DMB란 음성이나 영상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조해 이동 수신기에 보내는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한마디로 이동 수신기로 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라 하겠다.

DMB가 보편화되면 불자들의 신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크스님법문, 불교강의 등 다양한 불교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예상되는 신행패턴의 변화

기존의 방식으로는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사찰을 직접 방문하거나,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교양대학 등에 나가야 했다. TV나 인터넷으로도 일정부분 가능했지만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DMB는 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도 고음질의 오디오와 끊어짐 없는 영상 서비스를 24시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가 원하는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해 필요시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불교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신생활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나 주말을 이용해 사찰 등을 방문하고 싶은 관광객 등 비불교도들에게는 불교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어 불교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자들에게는 개인 업무 등으로 인해 사찰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특정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을 경우에도 즉시 휴대 단말

언제 어디서든 끊임없이 정보 접해 사찰 관광객 등에 불교 알리기 확대 불교계 사업자 선정 및 참여 지원 없어 콘텐츠 개발 통한 채널 임대방식 가능

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어 신생활의 보조 자료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불교계의 향후 대응

방송위원회가 2005년 지상파 DMB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본사와 불교방송이 DMB 코리아 컨소시엄과 NDMB 플러스 컨소시엄에 참여했지만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위성 DMB는 TU미디어가 독점 사업자여서 불교계에서 참여하고 있는 곳이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미 선정이 되었고 상

용화 되었다고 해서 DMB 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장하웅 교수는 "DMB가 보편화 되고 매체 영향력이 강해진다던 케이블 TV에서 흔히 행하고 있는 채널 시간 임대 방식으로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계에서 DMB에 맞는 콘텐츠 개발 한다면 사업자의 입장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개신교의 경우 CBS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 전주교와 불교는 서비스되고 있는 종교 콘텐츠는 없다. 이에 제 종교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DMB사업자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DMB란

DMB는 송출 방식에 따라 위성 DMB와 지상파 DMB로 나뉜다. 위성 DMB는 방송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위성으로 송출하면 다양한 개별 이동 단말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신율이 떨어지는 음영지역에는 갭필러라는 중계기를 설치해야 끊어짐 없는 방송 수신이 가능하다.

현재 SK텔레콤의 자회사인 TU미디어가 방송위원회로부터 독점 사업자로 선정, 2005년 5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DMB 전용 채널인 채널불루와 종합교육(EBS), 보도(YTN), 음악(m-net) 등 기존 유

선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로 구성되어 비디오 11개, 오디오 26개 등 총 37개 채널을 방송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위성 DMB는 유료 방송 채널로 가입비 2만원, 월 이용료는 1만 3천원이다.

이에 반해 2005년 12월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간 지상파 DMB는 비어있는 VHF 12번 채널과 군사용인 8번 채널을 이용해 지상파 기지국을 통해 방송 신호가 송출된다. 기존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와 KMMB, 한국DMB CBS, YTNDMB 등 6개 사업자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고 비디오 7개, 오디오 13개, 데이터 8개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지하철이나 고층 건물에 많은 도심에서는 중계기를 설치해야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없으나 현재 서울 수도권만 서비스 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충청, 전라, 강원, 경상, 제주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에 1개의 채널을 할당해 지역별 지상파 DMB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nia.com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2

성능 · 활용도 고려해야

캠코더 구매시 체크 사항

캠코더는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처음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캠코더를 사야 하는지 망설이게 된다.

캠코더는 가격대에 매기기 보다는 성능에 맞추어 예산을 잡는 것이 좋다. 싸다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화질이 좋지 않거나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캠코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캠코더 구매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자.

● 화소수

화소수는 캠코더의 화질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현재 일반 TV에서 볼 수 있는 화소수는 640*480으로 캠코더의 화소가 31만 이상이면 영상을 TV를 통해 보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화질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겸하는 캠코더가 많아 화소수가 높아야 정지화상을 잡는데도 좋다.

● 줌

캠코더에 36X, 100X 등의 표시가 바로 줌에 관한 내용이다. 줌은 광학 줌과 디지털 줌으로 나뉘는데 광학 줌은 캠코더 자체의 렌즈의 기능으로 줌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디지털 줌은 광학 줌을 디지털로 부풀린 수치를 말한다. 캠코더 외관에 표기된 수치는 바로 디지털 줌에 해당한다.

당연히 줌의 수치가 높을 것이 촬영하는데는 유리하다. 그러나 디지털 줌을 사용하면 멀리 있는 사물을 보여 주는 장점이 있지만 화질은 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 액정

캠코더로 피사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뷰파인더와 액정 두가지다. 뷰파인더는 흑백과 컬러로 나뉘어질 뿐 기계마다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액정의 경우는 크기와 화소수에 따라 보이는 사물이 달라진다. 크기는 2.5, 3, 3.5, 4인치 등으로 나뉜다. 2.5인치는 액정의 기본 사이즈이지만 촬영후 모니터나 기타 다른 기기로 불러낸 최소 3.5인치가 적당하다. 얼마나 피사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냐는 액정의 화소수에 따라 다르다. 같은 100만 화소라도 2.5인치의 액정이 3.5인치의 액정보다 훨씬 또렷하게 보인다.

● 정지화상

최근 출시되는 캠코더는 대부분 사진 촬영 기능이 있다. 캠코더에 촬영된 영상은 6메리 타입프 등에 녹화되지만 정지화상은 메모리 스틱에 저장되기에 컴퓨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CCD의 개수와 크기

CCD는 빛의 세기를 전자적 신호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 빛의 3원색은 빨강, 녹색,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CCD가 한개인 것은 3원색을 하나의 CCD가 받아들여 영상으로 처리된다. 이에 비해 CCD가 세 개인 것은 각각의 CCD가 하나의 원색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CCD가 많을수록 화질은 좋을 수밖에 없다. 가정용에서는 CCD가 1개지만 방송용은 CCD가 3개 내장을 사용해보면 멀리 있는 사물을 보여 주는 장점이 있지만 화질은 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김두식 기자

클릭! 즐겨찾기

접속하면 나만의 공간 '활짝'

부다피아 홈페이지빌더 무료홈피 제공

홈페이지를 돈 안들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부다피아 홈페이지빌더(http://homp.buddhania.com) 사이트다. 사찰이나 단체들이 무료로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초보자라도 홈페이지 제작 매뉴얼을 보고 나만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메뉴관리 기능을 통해 손쉽게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 쉽게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다.

개별 홈페이지에서 올린 행사 안내나 기타 공지사항은 부다피아 통합 게시판에 함께 공지되며 부다피아 인물/단체/행사 메뉴와 검색 페이지에도 서비스된다.

서버 사용료나 관리비 등 홈페이지 운영비가 적지 않으며 회원관리 등에 편의성을 갖춰 불자들에게는 더없이 필요한 사이트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불자용 마그네티크 웰빙밴드

※이러분들에게 권합니다.
 - 신경통, 전립선, 관절 및 편두통
 - 어깨가 결리고 뒷목이 빠근하신 분
 - 피로가 쉽게 오는 분
 - 정신적 안정과 숙면에 필요한 분
 - 정신집중이 필요한 수험생
 - 컴퓨터 작업을 오래하는 분

가격 98,000원

수월관음도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의 수호신
가정에 1점씩 영험의 가보로!**

만사형통의 불화!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는 불화!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고뇌와 고통을 구제하는 자비의 부처님으로 관세음보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앙은 매우 열렬하다. 수월관음도는 하늘에 뜬달이 물속에 비친달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과 꿈동이 물에 비친 달이 덧없음과 갈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인생의 고난을 초월하도록 하고 자비로운 구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수월관음도 불화는 100% 천연요탄 판화용지에 28도 옅은판화인쇄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진품과 다름없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는 특별 제작된 불화다. 영험의 고귀 불화 재현을 위해 30년이란 긴 세월을 장인정신 하나로 이 시대를 살아온 불화의 명장 法性 김의식 화백께서 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삼재물 소멸하고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도 물리치며 시작부터 풍요롭게 하는 영험을 담고 있는 불화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주는 가정의 가보로 손색이 없는 불화로 평가받고 있다. 최고급 2단 돌출 표구로 제작되어 품위가 있으며 가정과 사업장에 번영과 안녕의 수호신으로 1점씩 꼭 있어야 할 영험의 불화로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보급대행은 한국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 168,000원 문의전화(02)735-6919
 농협053-12-102911

높이 88cm, 폭 58cm

평생 부자지갑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 지갑

병술년 원하는 재물을 얻고 소원 성취하라!!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는 금강저도 부처

60년만에 은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 해다. 세상은돈만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동서남북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일때도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처하고 내부에는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고 승리하는 **금강저**를 손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

여성용 은나노 정지갑 (전보라색) 남성용 정지갑 (검정, 보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오마니 반매홍 벨트

삼불의 성심과 음양의 조화로 소망이룩!

승리의 선물! 건강의 선물! 지혜의 선물!

세상사는 동안 중생마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간다. 사람에게 따라 **합격의 소망, 승진의 소망, 사업성공의 소망, 연구성공의 소망, 주택소유의 소망, 취업의 소망, 건강회복의 소망, 결혼의 소망, 자녀를 갖고 싶은 소망**, 등 다양한 소망을 갖고 살지만 미련한 중생이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오마니 반매홍**은 삼불의 지혜를 얻고,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처음 계획했던 뜻대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진리의 뜻을 담은 벨트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므로서 화를 미리막고 시작과 끝이 풍요롭게 되는 진리의 법구다. 고급천연가죽으로 제작된 **오마니 반매홍자동 벨트**는 벨트에서 원적외선과 펄스에너지가 발생되어 장과 한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고급벨트로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택배로 보내준다. 가격 75,000원

문의(02)741-4488